한화케미칼, 여수에 1조원 투자

1만t 규모 폴리실리콘 공장 내년초 착공

2013년부터 가동…연매출 5000억 기대

한화케미칼이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여수공장에 1조원을 투자해 연산 1만t 규모의 폴리실리콘공장을 짓는다. 한화케미칼은 11일 서울 장교동 한화빌딩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투자 계획을 결의했다.

한화케미칼은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초 생산공장을 착공해 2013년 하반기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공장이 완공되면 2014년부터 연간 5000억원 가량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로써 한화그룹은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적극 개발하고 있는 태양광 사업분야에서 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태양전지(셀)·모듈-발전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수직계열화를 완성하게 된다. 특히 태양전지의 핵심소재인 폴리실리콘을 석유화학공장 운전경험이 있는 여수공장에 1만t 규모의 생산설비를 갖춰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이는 2014년 이후 한화그룹의 태양광사업에 필요한 폴리실리콘 수요량을 대부분 자체 충당함으로써 원료의 안정적 공급과 원가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한편 한화그룹은 지난해 8월 미국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세계 4위 규모의 태양광업체 '솔라펀파워홀딩스'를 인수해 사명을 '한화솔라원'으로 변경했다. 한화솔라원은 현재 400MW(메가와트) 규모의 잉곳과 웨이퍼를 생산하고 있다. 또 500MW의 태양전지와 900MW의 모듈 생산규모를 올해 말까지 1.3GW(기가와트), 1.5GW로 각각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중국 난퉁경제기술개발지구에 2단계에 걸쳐 2GW 규모의 태양전지와 모듈 생산설비도 구축할 방침이다. 1단계 1GW의 설비는 2012년 말 완공 예정이다.

지난 3월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태양광연구소인 '한화솔라아메리카'를 설립해 한국과 중국, 미국에 이르는 글로벌 태양광 R&D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또 지난 5일에는 태양광발전사업을 전담할 '한화솔라에너지'를 설립하는 등 태양광 분야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폴리실리콘=태양광발전시스템의 맨 앞에 위치한 핵심소재. 태양전지에서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일반 실리콘에 비해 감광성이 좋고 전기적 안정성이 높다. 예전에는 대부분 CPU 기판에 쓰였지만 최근에는 전체의 30% 정도가 태양전지 기판용으로 사용된다.

농협 새내기들 힘찬 출발 11일 광주시 북구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 앞에서 농협 신규직원 44명이 임용장을 받은 뒤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들은 이날부터 3주간의 연수를 마치고 광주본부와 전남본부 등 일선 사무소에서 영농지원 업무를 하게 된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화학업종, 작년 내수·수출 '쌍끌이'

전년비 증가액 최고…운송장비·철강금속 順

화학업종 기업들이 작년 한국 제조업의 대내외위상을 높인 주역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거래소와 상장사협의회가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 상장 제조법인 379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년과 비교해 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업종은 화학으로 전년보다 13조2011억원 늘었다.

화학은 내수액 역시 가장 많이 늘어 전년보다 9조9689억원 증가했다. 국제유가 상승과 정제마진 확대로 인한 정유사의 실적 개선과 적극적인 수출비중 확대 전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조사대상 법인의 수출과 내수 총 금액은 241조6305억원과 208조7175억원으로 전년대비 19.32%와 16.39% 늘었다.

이는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계열 4개사와 LG전자 등 LG그룹 계열 10개사 등 국제회계기준(K-IFRS)을 조기 적용한 33개 법인은 제외한 수치다.

화학에 이어 운송장비(11조2527억원), 철강금속(6조2731억원)의 수출액이 많이 늘었다.

증가율로는 의료정밀이 149.83%로 가장 앞섰다. 전기전자(39.33%), 철강금속(27.94%)이 다음이었다.

/연합뉴스

금형 설계 채용예정자 광주인력개발원 입학

대한상공회의소 광주인력개발원(원장 장국찬)은 11일 인력개발원 시청각실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의 하나로 '금형 설계 및 제작'과정의 채용예정자 30명을 대상으로 입학식을 했다고 밝혔다.〈사진〉

이 과정은 올해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 중 하나로 채용예정자와 사업주 간 사전 면접을 거쳐 채용 약정을 맺어 수료 후 취업하는 교육훈련이다. 교육기간은 4개월이다.

이번 과정의 교육생들은 (주)제일산기 등 20여개 업체에 취업이 확정됐다.

한편, 광주인력개발원은 국가 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을 실시해 매년 졸업생 95% 이상이 자격증을 취득·취업하고 있으며, 지난 2월 졸업생 258명이 전원 취업해 취업사관학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문의는 광주인력개발원 산학협력처 062-940-3500.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금호건설, 534억 공군기지 활주로 공사 수주

사천기지 7~8월께 착공

금호건설(대표이사 기옥)은 11일 534억원 규모의 공군 사천기지 활주로 재포장 공사를 수주했다고 밝혔다.〈조감도〉

공군 중앙관리단이 발주한 이번 사업은 사천기지의 활주로 2.7㎞를 재포장하는 것으로, 금호건설(55%)을 주관사로 우미(15%)·서광(10%)·동아(10%)·진양건설(10%)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한다.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 이달 실시설계에 들어가 7~8월께 착공해 24개월간 공사할 예정이다.

금호건설은 인천국제공항, 제주공항, 양양공항, 무안국제공항 등을 시공했으며 현재 두바이 월드센트럴 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및 아부다비 국제공항 관제탑 공사를 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국세청, 역외탈세 4741억 추징

국세청이 올해 1분기 역외탈세에 대해 474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조세피난처에 거액의 재산을 은닉하고 수출입 거래를 조작하는 등 파렴치한 탈세 행각도 여실히 드러났다.

국세청은 지난해 구축된 역외탈세 대응 인프라를 바탕으로 역외탈세 차단에 역량을 집중해 역외탈세범은 끝까지 추적해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11일 올해 1분기 국내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으로 위장해 조세피난처에 소득을 은닉한 사주 및 기업의 역외탈세 행위 41건에 대해 총 4741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 가입, 미국과 동시범칙조사약정 체결 등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역외탈세 관련 조직 및 인력을 확충해 조사 역량을 강화한 결과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는 한국,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6개국으로 구성된 탈세정보 교환 협의체이다. 동시범칙조사는 두 나라에 경제적 거점을 가진 탈세 혐의자를 동시에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나아가 국세청은 지난해 10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했던 국내 거주자 및 법인이 올해 6월 이를 신고해야 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를 통해 역외세원 관리의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자진 신고자는 세무상 간섭을 최소화하겠지만, 신고기한 후 적발되는 미신고자는 탈세 추징 및 고발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코스피지수	1,336.39 (+7.39)
▲ 코스닥지수	491.94 (+8.14)
▼ 금리 (국고채 3년)	3.70% (-0.02)
▲ 원·달러 환율	1,335.00원 (+3.0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화인코리아 日지진 '반사이익'

삼계탕 주문 폭주 … 1분기 수출 164만달러

일본 대지진 여파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삼계탕 주문이 폭주하면서 화인코리아의 매출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11일 국내 대표적 닭·가공업체인 (주)화인코리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계탕과 오리고기의 수출 실적이 164만 달러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1만7000달러에 비해 99%가 늘어난 것이다. 특히 일본 재지진 여파로 손쉽게 가열해서 먹을 수 있는 삼계탕이 인기를 끌면서 일본 주문이 폭주하고 있다.

지난해 1분기 5만6424㎏, 31만달러어치였던 일본 수출이 올해는 2배 늘어 10만4016㎏, 63만달러어치가 팔렸다.

화인코리아는 이같은 성장세로 볼 때 올 연말까지는 1000만달러 수출 실적이 무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수출 실적은 일본 등 12개국에 550만 달러였다.

내수시장도 활발하다. 올 1분기 내수 26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86억원에 비해 39.8% 늘었다.

화인코리아 관계자는 "올해 닭과 오리 가격이 기대이상 오르는 등 매출원가가 상승하고 수출 및 내수의 호조로 창사 이래 최대인 1900억원의 매출과 500억원의 영업이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동의나라 등 64개 中企 글로벌리더스클럽 총회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은 11일 테라이엔씨·동의나라·인터세이브 등 지역 수출 중소기업 64개사로 구성된 '글로벌비전리더스클럽(GVLC·회장 이정남)'이 12일 오후 5시 광주시 북구 첨단산단 내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에서 총회를 연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창립한 글로벌비전리더스클럽은 지역 수출기업 64개사가 참여하고 있고 간 상호교류를 통해 수출 성공기업의 정보와 경험을 나누고 수출 초보기업에게 노하우를 전한다.

특히 우수 수출기업 벤치마킹, 해외마케팅 전략 세미나, 해외시장 조사 및 해외바이어 발굴 지원, 우수제품 공동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해 실질적 네트워크에 역점을 두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